

여성기금 3억원 지원사업 발표

한국여성재단 18일 '창립2주년 후원의 날' 행사

1999년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 아래 124개 여성·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여성민간단체로 출발한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이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2주년 재단 후원의 날' 행사를 갖는다.

명예위원장인 이희호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정·재계, 학계, 여성계 인사가 다수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8월말 공모해 100여개 단체가 지원한 '2002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결과가 발표되며 지원금도 전달된다. 총 3억원의 지원금은 일반 여성관련 사업에 2억원,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에 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회원만 9만여명에 달하는 여성재단은 그간 70여억원의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했고 올해 처음으로 기

금 수익금으로 마련된 3억원으로 여성관련사업을 지원케 된 것. 여성재단은 '위민스 갈라 콘서트' 등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주의적 공연개최외에 '월급·용돈의 0.1% 기부, 유산의 1%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퍼내도 퍼내도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화수분 만들기' 퍼포먼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행사가 진행된다. 이 '화수분 만들기' 퍼포먼스에는 여성재단의 '달란트 1%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수 이상은씨의 '작은 음악회' 무료 공연이 포함된다. 이씨는 오는 29~31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자신의 콘서트 공연 수익금 1%와 좌석의 1%도 여성재단에 기부했다. 02-595-6364